高麗末·朝鮮前期 地藏菩薩畵의 考察

金 廷 禧

Ⅰ、머 리 말

삼국시대 불교수입과 함께 중국 六朝의 불화양식을 수용한 이래①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원을 장엄하거나 민중을 교화하는 목적하에 많은 불화가 조성·봉안되었다。 우리나라의 불화는 수용초기에는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나 唐 武宗의 廢佛이후에는 한국적인 풍토아래에서 제작되게 되어 그 후 불화의 도상에는 민간의 고유신앙 및 민중불교의 많은 요소가 융합되게 된다。② 따라서 불화는 일반 서민들의 신앙형태가 반영된 종교회화로서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민중의 불교신앙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地藏菩薩畵이다。 죽은 사람의 죄를 구제해주고 지옥에 떨어진 衆生을 인도하여 안락한 淨土나 해탈의 길로 이끌어 주는 誓願을 지닌 지장보살은 불교가 각 지방에 전파됨에 따라 그곳의 사정에 적응하고 빨리 정착하기 위하여 민간신앙을 제휴·흡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보살신앙이다。 특히 지장보살에 대한 신앙은 죽은 후의 고통、즉 六道輪廻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해 준다고 하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소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현실생활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퍽 친근한 신앙이었다。 더구나 외적의 침입이 잦았던 우리나라의 경우、 불안한 생활에서 구원을 약속해 주는 지장보살신앙은 전시대를 통하여 꾸준히 지속되어 많은 작품들이 조성·봉안되었다。

본고에서는 고려말기에서 조선전기에 걸쳐 제작된 지장보살화를 중심으로 지장보살신앙의 기원 및 역사、 불화의 양식적 특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논문작성에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文 明大교수님을 비롯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Ⅱ、地藏菩薩畵의 造成背景

1、地藏菩薩信仰의 起源

지장보살은 석가모니부처가 입멸하여 56억 7천만년을 경과한 후 미륵보살이 이 세상에 출현할 때까지인 無佛時代 동안 일체의 중생을 구제하도록 석가로부터 의뢰받은 보살이다。 즉、 지장보살은 석가여래의 부촉을 받고 매일 아침 定에 들어 중생의 根機를 살피고 그 몸을 六道(天、 人、 阿修羅、 餓鬼、 畜生、 地獄)에 나타내어 일체중생을 교화하며 또한 중생이 모든 苦를 벗어나고자 할때 一心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해탈을 얻어 第一의 樂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보살이다。

지장보살은 원래 인도신화중 Brahman교의 地天에서 유래하여 불교에 들어와 이상화된 후 大乘佛敎時代에 이르러 불교의 체계속에 완전히 정착하게 되는데③ 지장보살은 그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大地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즉、 梵名 Kṣitigarbha는、 Kṣiti는 「머무른다」는 의미를 지닌 Kṣi에서 轉化한 말로서 地 또는 住處의 의미를 가지며、 garbha는 胎藏 또는 含藏의 뜻으로 땅을 含藏하거나 땅안에 含藏되는 것을 의미한다。④ 결국 만물을 육성시키고 포함하여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있는 대지의 속성처럼 지장보살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위대한 힘을 갖고 있다고 믿어져 왔다。 이러한 점은 지장보살이 南方에서 유래했다고 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⑤ 즉、 인도의 고대세계관인 須彌

四州중 남방주인 閻浮提(Jambu-dvipa)는 인간이 살고 있는 현실세계이며 이 남방주를 지탱해주는 대지는 만물을 支持하고 包藏하여 인간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대지를 神으로서 상징한 것이 바로 지장보살이라는 것이다.

한편, 지장보살의 가장 일반적인 형상은 聲聞比丘의 모습으로 錫杖과 寶珠를 들고 있는 것이다. 보통 부처는 佛의 형상으로, 보살은 在家俗人貴族의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이 보편적이나 지장보살은 석가입멸에서 미륵의 出世에 이르기까지 無佛時代의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서원으로 한 보살이기 때문에, 중생제도의 서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중생과 친근한 성문의 모습으로 나타낸다.

이와 같이 인도의 地神에 대한 신앙에서 유래한 지장보살신앙은 불교의 東傳에 따라 중국 및 한국, 일본 등지로 퍼지게 된다.

2、韓國의 地藏菩薩信仰

인도에서 기원하여 중국으로 전래된 지장신앙은 불교의 전래와 함께 삼국통일을 전후하여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었다.⑥ 기록에 의하면 삼국시대에도 지장보살신앙이 보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본격적인 지장신앙은 8세기 眞表律師에 의해 가장 먼저 실천, 전파된 듯 하다.⑦ 즉, 『三國遺事』 卷4 眞表傳簡條에 보면 진표율사가 23세 되던 해(740년) 仙溪山 不思議庵에서 지장보살의 現身을 보고 淨戒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⑧ 그 후 진표는 금강산으로 들어가 鉢淵寺를 창건하고 7년 동안을 머물면서 占察法會를 열었으며, 그의 제자인 永深은 속리산으로 들어가 吉祥寺를 세우고 점찰법회(果證法會)를 열어 진표의 佛骨簡子를 전했다.⑨ 그런데 心地가 바로 이 果證法會를 여는 곳을 찾아와 예배할 때 지장보살이 날마다 와서 위문했다고 하는 기록도 보이고 있어⑩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면 점찰경신앙과 더불어 지장보살에 대한 신앙이 유행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神昉은 『大乘大集地藏十輪經序』를 썼으며⑪ 석굴암에 지장보살상이 조각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정토신앙과 깊은 관련을 갖는 통일신라시대 지장신앙의 성행은 唐代 지장신앙이 널리 유행했던 사실이나 통일신라기에 들어와 원효의 아미타신앙이 완성되는 것 등을 생각해 볼때 오히려 당연한 일이 아닌가한다.

한편, 고려시대가 되면 불교는 국교로서 크게 번창하게 되는데, 잦은 외란으로 국가가 어지럽게 됨에 따라 당시의 난국을 佛德과 神力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각종 法會, 道場 등이 많이 베풀어 지게 된다.⑫ 그러다 고려후기에 이르러 사원의 부패와 승려의 정치관여 등으로 불교가 쇠퇴하게 됨에 따라, 불교자체의 혼란된 상태가 몽고의 침입이라는 국난과 복합되어 구원을 약속하는 지장신앙은 귀족 및 일반 민중 사이에서 열렬히 환영을 받게 된다.

이같은 사실은 현존하는 고려불화중 지장보살화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나 徐兢의 『高麗圖經』 安和寺기술중 절안에 無量壽殿을 비롯하여 彌陀堂과 觀音, 地藏을 모신 집들이 있다는 것,⑬ 고려후기 사찰의 중수기를 보면 대개 미타전, 관음전, 지장전 등이 있는 사실 등을 보아도 충분히 입증이 된다.⑭

또한 『高麗史』 恭愍王條에는 王이 그의 생일날 잔치를 베풀려는 것을 만류하고 대신 地藏寺에서 승려 一千명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⑮ 이러한 사실에 의거해 볼때 고려시대의 지장신앙은 殺生을 禁하고 救世의 福樂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듯 하며 同書 卷35 忠肅王條의 「…地藏坊里에 화재가 나 三〇〇여집이 불에 탔다」라는 기록은 민중의 생활 깊숙이 지장신앙이 침투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⑯

한편, 조선시대에 이르면 숭유억불정책으로 인하여 불교계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太宗은 즉위하자 곧 儒生들의 사상 그대로 숭유억불의 정치를 실천, 불교의 종파를 병합하여 사찰의 수를 줄이고 도첩제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그 뒤 부왕의 억불정책을 이은 世宗은 七宗의 종단을 폐합하여 禪敎兩宗으로 하고 양종 각 18개사원씩 만을 남겨놓고 그

외의 사원을 모두 폐지시켰다.

그러나 본래 신심이 두텁던 世祖는 왕위에 올라 호불정책을 실시하여 많은 절을 세우고 三寶를 崇奉하는 등 佛事를 일으키게 된다。또 그는 刊經都監을 설치하고 많은 불경을 국역、간행하였는데 同三年에는 『地藏經懺法』을 주해하고 승려로 하여금 『地藏經』一卷을 쓰게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⑰ 그밖에도 學祖에게 명하여 『地藏菩薩本願經』을 언해하게 하여 『釋譜詳節』卷21에 편입시키기도 하였는데⑱ 이같이 지장경이 언해되었다는 것은 지장신앙이 일반 백성들에게 널리 퍼져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그후 조선후기 18·19세기에도 여러번 지장경전이 언해되어 간행되고⑲ 地藏經靈驗傳 등도 간행、보급되어 지장보살에 대한 신앙은 민중의 불교신앙으로서 꾸준히 유행되었다。

그런데、조선시대 지장신앙의 성격을 살펴볼때 가장 특징적인 점은 민간 불교신앙과의 융합이 크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즉、고려후기에 이르러 죽은 후의 신앙과 연결되어 큰 유행을 본 지장신앙은 조선조에 오면 冥府殿의 주존으로서 사후 명복을 비는 것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된다。⑳ 이것은 고려시대의 지장보살화가 단독상으로 많이 조성되던 것에 비해 조선조에 만들어진 지장보살화는 거의 모두가 지옥의 十王을 대동한 地藏十王圖라는 점、또 지장보살화를 모신 전각이 명부전이란 사실로도 알 수 있다。그러나 무엇보다도 불교가 심하게 억압을 받던 조선조 시대에 현존하는 바와 같이 수 많은 지장보살화가 조성、봉안되었다는 사실이 당시의 지장보살신앙을 가장 잘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장보살신앙은 삼국통일기를 전후하여 전래되어 이후 오늘날까지 가장 각광을 받는 보살신앙의 하나로서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Ⅲ、高麗末·朝鮮前期 地藏菩薩畵의 形式 및 樣式的 特徵

1、高麗末期

우리나라에 지장신앙이 소개된 것은 삼국통일을 전후한 시기이지만 전래되자마자 사원에 지장보살화가 조성、봉안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그러나 『三國遺事』卷4 臺山五萬眞身條에 地藏房을 두어 一萬地藏像을 그리어 봉안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五臺山신앙이 확립되는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서는 後佛幀畵로 조성되어 봉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㉑

10세기초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왕조는 불교를 국가창건의 道로 삼고 더욱 불교옹호에 힘써 서울인 松岳을 중심으로 많은 사원을 창건하게 되었다。크게는 국가의 안녕을 위해、작게는 개인의 명복을 빌기위해 願刹을 세우고 많은 佛塔 내지 佛像、佛畵를 조성、봉안했는데 이같은 당시 佛事의 융성은 「高麗王城有佛寺七十區」라는 宋史의 기록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㉒

한편、고려시대 초기 지장보살화에 관한 문헌자료로서는 『高麗圖經』卷17의 靖國安和寺條를 들 수 있다。㉓ 즉、阿彌陀堂에 觀音과 地藏을 봉안하고 東廡에는 祖師像을、西廡에는 地藏像을 그렸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지장보살화가 봉안된 곳이 아미타전이라는 사실은 당시의 지장신앙이 아미타신앙과 결부되어 淨土信仰的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외에도 고려시대에는 대부분의 사찰에 지장전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많은 지장보살화가 제작되었으리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으나 현존하는 고려의 지장보살화는 대부분 고려후기、13세기~14세기말에 걸쳐 조성된 것 들이다。전기에 해당하는 작품이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또 현존하는 후기의 작품도 대부분 日本을 비롯하여 국외에 남아있는 것은 11세기이후 고려와 일본과의 교역,[24] 고려말 왜구의 노략질,[25] 임진왜란때 강제반출된 것, 일제시대에 수탈된 것 등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모두 몇 점의 고려시대 지장보살화가 남아있는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알려진 작품은 약 10여점에 불과하다. 그 중 대부분은 日本에 전하고 있고 湖巖美術館에 1점, 서독 베를린 동양미술관에 1점이 소장되어 있다. 이제 그 작품들을 중심으로 고려시대 지장보살화의 형식 및 양식적 특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形 式

고려시대에 제작된 지장보살화의 형식은 대체로 4가지 형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단독의 지장보살화, 지장삼존도, 지장보살과 권속그림, 지장시왕도 등이다. 물론 이외에도 아미타여래의 협시보살로 그려진다던지, 아미타8대보살도중의 하나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협시의 역할에 그치고 지장을 主尊으로 한 형태는 위의 네가지 경우이다.

우선 地藏獨尊圖는 단독의 지장그림으로 고려시대 특징적으로 조성되던 형식이다. 대개는 입상의 형태로 많이 조성되었는데 얼굴은 모두 정면향이지만 몸은 3/4측면으로 비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일찌기 燉煌에서는 幡畵로서 많이 조성되었고 고려시대 작품으로는 약 4점 정도가 남아있다(日本 根津美術館所藏, 善導寺所藏, 德川黎明會所藏, 南法華寺所藏 地藏菩薩畵). 형상은 오른손에 寶珠, 왼손에 錫杖을 든 것이 가장 보편적인데 돈황의 것은 모두 민머리(승려머리)이나 우리나라에서는 頭巾을 쓴 모습이 압도적이다. 두건 쓴 지장보살의 형태는 현재 중국본토나 일본등에는 유품이 거의 없으며 중앙아시아의 Turfan, 돈황, 한국에서 많이 발견되는 형상이다.[26] 형태는 대개 검은 바탕에 金泥로 小圓文을 그린 천을 두건형으로 이마에서 관자놀이까지 두르고 귀 뒤로 하여 어깨까지 내린 것과 먼저 천으로 머리를 감싸고 髮際에 다른 帶狀의 천으로 좌우 귀앞에서 묶어 끈의 앞 자락은 두가닥 가슴앞으로 내린 형식이 있는데 앞의 형태는 주로 한국에서, 뒤의 것은 돈황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이다.

왜 이와 같은 頭巾地藏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說이 있다. 먼저 그 조성지가 Turfan, 돈황 및 한국이라는데 착안하여 중생제도를 위해 옥외를 오랫동안 보행하는 지장보살의 성격상 위와 같은 변경지방에서 두건지장의 형상이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다.[27] 또 두건을 쓰는 것은 중앙아시아의 어떤 儀式에서 기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28] 및 두건지방의 형상이 중국본토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중국의 변경, 곧 Turfan, 돈황 및 한국에서 발견되는 것을 당시 Turfan과 고려의 외교관계에서 해결해 보려는 학자도 있다.[29] 즉, 중국 중심부에는 두건지장의 존재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시 Turfan을 매개로 하여 고려와 돈황사이에 불화교섭이 생겨 圖像에서 공통점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서는 『高麗史』 元宗 12年(1271) 8月條에 몽고, Turfan 승려 4명이 고려에 왔으며, 또 忠烈王 20年(1294) 7月에는 Turfan의 승려 吃折思入, 師入哈思 등이 고려에 파견되었고, 忠肅王 8年(1321) 7月에는 上王이 Turfan에 들어갔다는 기록 등을 들 수 있다.

다음 地藏三尊圖는 본존인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왼쪽에 道明, 오른쪽에 無毒鬼王이 협시한 것으로서 이 형식은 석가삼존도와 같이 三尊의 형태를 취하여 본존으로서의 성격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도상인 듯 하다.

지장보살의 가장 대표적인 협시인 道明은 원래 중국 襄州 開元寺의 승려로서 大曆 13年(778) 2月8日 黃衣의 使者 2인에 의해 염라대왕에게 연행되어 갔다가, 龍興寺의 중 道明의 착각이라하여 다시 이 세상에 돌아왔다고 하는 『還魂記』의 기록에 의해 그후 지장보살의 도상에 계속 나타난다.[30]

또 무독귀왕과 지장보살과의 관계는 『地藏菩薩本願經』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지장보살의 전신인 Brahman의 딸이 지옥으로 갔을때 財首菩薩의 化身인 무독귀왕이 나와 맞으며 그녀의 어머니가 고통받는 지옥세계를 보여준다고 하는 기록에 의거하는데, 도상에서는 보통 학장을 한 帝王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현재 日本의 圓覺寺에 소장되어 있는 지장보살화가 이 삼존도형식에 속한다.

다음은 중앙에 지장보살이 위치하고 좌우로 지장의 권속이 따르는 형식이다. 현재 湖巖美術館에 소장되어 있는 지장보살화가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지장을 중심으로 梵天, 帝釋天 및 四天王, 도명, 무독귀왕이 협시하고 있다. 이 형식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지장보살화가 더욱 발전·확대되어 나타나는 三藏菩薩畵에서도 자주 등장되곤 한다.

마지막으로 地藏十王圖는 지장과 권속그림에 十王을 첨가한 형태로서 가장 복잡하며 가장 보편적으로 그려지던 형식이다. 지장과 十王과의 결합은 唐代末 僞經이라고 하는 『預修十王生七經』과 『地藏菩薩發心因緣經』이 출현한 이후로서 지장보살이 특히 지옥의 구주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끌어 진 것이다. 十王은 道家의 지옥사상에 Mani敎의 지옥에 관한 사고가 더해져 기원한 것으로[31] 唐代末에 이르러 불교의 지옥과 연결되게 된다. 따라서 唐代末부터는 지장시왕도가 세간에 널리 유행하게 되어 현재 돈황에 많은 예가 남아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이래 조선조 전·후기에 걸쳐 오늘날까지 가장 많이 제작되는 형태로 지장보살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존하는 고려 지장보살화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지장시왕도는 현재 日本 日光寺를 비롯하여 靜嘉堂 및 서독 베를린 동양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권속으로는 범천, 제석천을 비롯하여 十王, 使者, 四天王, 道明, 無毒鬼王이 일반적이며 베를린 동양미술관소장 지장보살화에서처럼 金毛獅子가 묘사되기도 한다. 여기서 十王은 대부분 관을 쓰고 笏을 든 모습이나 第5閻羅大王은 면류관을 쓰고 第10五道轉輪大王은 갑옷에 투구를 쓴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상 살펴본 네가지 형식이외에도 관음과 지장이 함께 그려지는 觀音·地藏圖가 있는데(예 : 日本 西福寺所藏) 이것은 아마도 관음·지장이 모두 정토신앙과 관련을 갖고 있는 점이나 관음을 天, 지장을 地로 하는 중국의 二元觀에서 영향을 받은게 아닌가 한다.[32]

(2) 高麗時代 地藏菩薩畵의 樣式上 編年

현존하는 지장보살화중 연대가 분명한 것은 1307年 魯英筆 아미타9존도 뒷면의 지장보살 그림뿐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漆위에 金泥로 그린 그림이라 絹本에 채색하는 다른 그림들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적당치 않다. 따라서 나머지 연대불명의 작품들의 양식상 편년을 정하는 것은 퍽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장보살화의 양식은 동시대 다른 불화와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화들과의 비교를 통해 어느정도 지장보살화의 양식상의 편년이 가능하리라 본다. 더구나 고려후기, 특히 14세기의 불화가운데는 연대가 분명한 작품들이 꽤 있으므로 양식비교가 비교적 수월하리라 본다.

고려시대 지장보살화의 가장 걸작으로 생각되는 日本 根津美術館所藏의 지장보살화(圖1)는 전신을 오른쪽으로 약간 비틀면서[33] 연꽃대좌위에 당당하게 서있는 지장보살단독상이다. 화면을 거의 꽉 메우며 그려진 이 지장보살은 몸을 약간 비틀고 긴 석장을 대각선으로 들고 있어 단조로운 화면을 변화있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이 석장은 화려한 金泥의 원형두광과 함께 지장보살의 당당한 신체로 꽉 메워진 듯한 화면을 단순한 선으로서 잘 조화시키고 있다.

지장보살의 신체는 약간 오른쪽을 향하고 있지만 얼굴은 정면향을 하고 있는데, 둥글며 환한 얼굴은 귀족적이라 할 만큼 우아하게 표현되어 있다. 특히 초생달같은 눈썹, 가늘고 긴 눈, 큼직한 코와 작은 입, 팔호형(亡)의 이마 등은 1320年 아미타9존도의 지장얼굴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 검은 바탕에 금니로 둥근 꽃무늬

가 새겨진 頭巾이라든지 귀옆의 두건장식, 가사 가장자리의 牡丹唐草文 등도 퍽 유사하다.

한편, 지장보살의 당당한 신체, 넓은 가슴 및 연화좌를 밟고 있는 발의 표현과 연화대좌의 모습, 법의의 문양 등은 14세기초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阿彌陀如來圖(日本 東海庵所藏)와 몹시 흡사하여 이 작품의 연대를 14세기초기로 볼 수 있지 않나한다.

근진미술관소장 지장보살화와 함께 고려지장보살화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으로 日本 善導寺所藏 지장보살화(圖2)를 들 수 있다. 오른쪽으로 몸을 약간 비틀고 두 손으로 석장을 비스듬히 집고서 있는 僧形의 지장보살은, 중생을 구제해주는 자비로운 보살이라는 지장의 성격을 잘 말해주듯 매우 부드럽고 온화한, 마치 소년과도 같은 갸름하면서도 앳된 표정을 하고 있다. 신체 역시 날씬하고 유연한데, 이처럼 갸름한 얼굴이나 날씬한 몸매는 1307년 魯英筆 아미타 9존도 인물들의 신체표현과 유사한 것으로서, 각지고 네모난 얼굴 및 당당하면서 약간은 짧은 듯한 신체표현이 주류를 이루는 고려불화의 인물표현과는 다른 특징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다.

반면, 청록색 가사와 담홍색 상의에 새겨진 찬란한 金泥의 꽃무늬나 가사형태, 내의, 장신구 등은 1306年 阿彌陀佛坐像(日本 根津美術館所藏)과 비슷하다. 따라서 이 선도사의 지장보살화 역시 14세기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면 어떨까 한다.

한편, 日本 德川黎明會所藏 지장보살화(圖3)는 앞서 살펴본 근진미술관소장의 지장보살화와 구도, 형태, 색채, 세부표현 등에서 매우 흡사한 작품이다. 즉 옆으로 살짝 비튼 자세, 오른손의 투명한 보주, 대각선으로 긴 석장을 비롯하여 가사의 문양 등이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다. 그러나 지장의 얼굴이 1350年 彌勒下生經變相圖 본존의 얼굴과 비슷한 점이나 얼굴표현에 나타난 圖式化의 경향, 다시 말해 얼굴이 넓어져 눈, 코 입 등의 비례가 잘 맞지않은 점, 지장의 신체에 잘 어울리지 않게 유난히 긴 석장 등으로 볼때 근진미술관소장 지장보살화(圖1)보다 다소 시대가 떨어지는 작품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다음 본존인 지장보살 이외에 十王 및 권속이 표현된 서독 베를린 동양미술관소장 지장보살화(圖4)는 구도는 二段構圖로서 윗부분에는 지장보살이 왼 발을 내리고 연꽃대좌위에 걸터 앉은 소위 半跏의 자세로 앉아 있는데 머리에는 검은 천에 원 무늬가 그려진 두건을 쓰고 왼손에는 보주를 들고있다. 그런데 여기서 2단의 구도라는 것은 협시들을 거느리는 본격적인 예배화일 경우 상하 2단으로 엄격히 나누어 상단에는 본존인 주인공을 크게 강조, 묘사하고 하단에는 대좌를 중심으로 협시들을 다소 작게 배치하는 구도로서 고려시대 크게 유행하던 구도법이다.[34] 지장보살화에서 특히 다른 불화와 달리 본존과 권속사이에 비례차가 큰 것은 좁은 화면에 더 많은 권속들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필연적인 결과라 생각된다.

다시 베를린 동양미술관소장 지장보살화로 되돌아가서 여기에서의 각 인물의 표현은 언뜻 보면 모두 비슷한 것 같으나 자세히 보면 각기 개성있는 묘사를 하고 있다. 즉, 四天王의 이글거리는 눈동자는 화면에 생기를 주고 있으며, 十王의 굳게 다문 입과 사고하는 듯한 진지한 표정등은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또한 화면 오른쪽에서 걸어 나오는 듯한 使者는 휘날리는 옷자락과 허리를 굽힌 모습에서 이제 막 화면으로 들어온 듯한 전령의 모습을 충분히 전해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화면의 정중앙 아래에서 으르렁거리는 金毛獅子 역시 화면에 생동감을 주는 한 요소이다.

그러나 日本 靜嘉堂所藏(圖5) 지장보살화는 모든 점이 이 작품과 비슷하나 더욱 온화해진 인물표현, 좀 더 부드러운 색채, 본존에 비해 더욱 작아진 권속 등으로 인해 한결 생기없는 도상이 되었다.

이 두 그림과 같은 十王圖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日本 日光寺所藏 지장보살화(圖6)가 있다. 이 역시 앞의 두 그림의 구도와 같이 화면을 上, 下 2단으로 구성하여 상단에는 지장보살을 배치하고 하단은 지장보살의 권속을 배치한 일종의 지장보살 群圖이다. 전면의 좌우에는

使者와 判官이 함께 묘사되고 그 다음 十王이 좌우로 시립하고 있으며, 대좌 바로 앞에 梵天과 帝釋天, 그 다음 도명과 무독귀왕, 이들 옆으로 四天王이 각각 시립하고 있는데 범천 및 제석천이 마치 협시들의 중심인 것처럼 크게 그려져 있는 것이 주목된다.

본존 지장보살은 두건을 쓰지 않은 승형의 형상으로서 앳된 얼굴표정이나 약간 갸름한 얼굴 등이 善導寺所藏 지장보살화(圖2)와 비슷하나 그보다는 덜 세련되었다. 그러나 이 불화는 앞서 본 베를린所藏 지장보살화(圖4)나 靜嘉堂所藏 지장보살화(圖5)와 비교해 볼 때 더욱 도식화된 인물표현, 약간 세장해진 신체표현, 힘없는 느슨한 필치의 의습묘사, 생기없는 표정 등에서 더욱 활기가 없어져 맥빠진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러한 느낌은 두루마리를 받쳐 든 使者의 모습에서 더욱 그러한데, 使者의 모습은 베를린所藏 지장보살화(圖4)나 靜嘉堂所藏 지장보살화(圖5)에서처럼 막 화면으로 들어오는 듯한 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어중간한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맥빠진 듯한 인물형태나 힘없이 늘어진 의습 등의 표현은 1350년 彌勒下生經變相圖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日光寺所藏의 지장보살화(圖6)는 앞의 두 작품보다 시대가 뒤떨어지는 14세기 말경에 제작된 작품으로 보인다.

국내에 전하는 유일한 고려시대 지장보살화인 호암미술관소장 지장보살화(圖7)는 지장시왕도가 축소된 지장그림이다. 즉, 使者와 判官, 그리고 十王을 축소시킨 것으로 범천과 제석천, 사천왕, 도명존자, 무독귀왕이 둥근 두광으로 지장을 떠받들고 있다.

이 그림은 다른 어느 그림보다도 중후한 느낌을 주는데 그것은 더 넓어진 본존의 얼굴과 가슴, 각 인물의 중후한 얼굴표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약간은 둔중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본존의 얼굴 및 범천, 제석천의 얼굴은 1350년 미륵하생경변상도의 본존 및 보살의 얼굴표현과 비슷하며 사천왕의 모습 역시 퍽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불화는 아마도 14세기 후반기에 그려진게 아닌가 한다.

그런데 이 불화에서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구불거리는 의습선이다.[35] 이러한 구불거리는 의습선은 1307年 아미타9존도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것으로 日本 廣福 護國禪寺所藏 아미타9존도 및 德川黎明會所藏 아미타9존도 등에서도 보인다. 구불거리는 필선은 보통 중앙아시아의 화가인 위지을승(尉遲乙僧)이 長安에 온 후 그 양식이 소개되었다고 알려져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吳道子風이라고 불리우고 있다.[36] 그러나 고려불화의 구불거리는 의습선은 아마도 南宋의 불화에서 유래된 듯 하다. 즉 중국 浙江省 寧波지방의 화가인 普悅의 아미타삼존도를 비롯하여 Cleveland 소장 아미타삼존도, Boston Museum of Fine Arts 소장 騎獅文殊圖 등 남송불화에서 이와 유사한 부드럽게 구불거리는 필선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호암미술관소장 지장보살화(圖7) 역시 이러한 전통속에서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퍽 특이한 형태로서 도명과 무독귀왕만이 시립하고 있는 지장보살화가 있다. 현재 日本 圓覺寺에 소장되어 있는 이 불화(圖8)는 현존하는 지장보살화중 가장 大作으로서 가로가 一三〇cm, 세로 一三九·四cm에 달하는 대형에 속하는 그림이다. 여기에서는 본존이 화면의 거의 2/3 정도를 차지하게끔 꽉 차게 묘사되어 있어 한결 종교심을 강조하고있다.

이 불화 역시 2단의 구도로 되어 있는데 화면아래 중앙에 金毛의 獅子가 묘사되어 전체적으로 마름모꼴 구도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원각사소장의 지장보살화는 다른 지장보살화와 다른 이질적인 느낌을 준다. 그것은 赤色과 綠色을 많이 사용하는데서 오는 느낌으로 퍽 중후한 감을 갖게 하는데 이런 느낌은 본존의 어색할 정도로 장대한 신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외에도 본존, 지장보살및 무독귀왕의 도식화되고 느슨한 의습표현과는 달리 도명이 입고있는 가사는 끊어졌다 다시 이어지는 듯한 필치가 구사되어 마치 禪畵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 역시 화면에 괴이하고 어색한 느낌이 들게하는 한 요소가 되는 것 같다.

이 불화의 편년에 대해서는 13세기로 올려잡는 학자도 있으나 좀 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이상 10여점의 작품을 중심으로 고려시대 지장보살화의 양식상 편년을 밝혀 보았다. 대부분의 작품은 14세기에 제작된 것들로서, 지장시왕도의 경우 동시대의 다른 불화와 마찬가지로 2단의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 색채는 옅은 홍색과 녹색, 금색 등의 밝고 화려한 색깔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색채는 濃淡없이 고르게 되어 있는데 가장자리의 윤곽은 능숙한 墨線으로 되어있다. 또 보통 인물은 밝은 색으로 칠해서 명랑하고 화려한 느낌이 드는 반면 화면의 배경은 어두운 색조로 되어 있어 그림에 한층 더 신성한 분위기를 부여하고 있으며 비현실적인 세계를 충실히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려시대의 경우 색채의 사용이 한정되어있는 반면 문양은 매우 화려하고 다양하여 장식적 효과를 더해 주고 있다.[37]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양은 나선원문을 비롯하여 草花文, 雲文, 牡丹唐草文 등으로 보살의 가사, 두건을 비롯하여 권속들의 의복 등에 섬세하게 시문되어 있다.

2、朝鮮前期

국교로서 융성하던 고려시대의 불교는 고려말기에 이르러 일부 승려들의 세속화와 사원세력의 비대로 점차 약화되어 가다가 숭유억불을 國是로 삼던 조선시대에 오면 주로 사회의 이면에서 활동하는 소극적 사상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따라서 불화도 고려시대의 귀족적 불화와는 달리 일반 민중에게 친근한 불화들이 많이 조성된다. 그것은 불화의 봉안이 국가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민중 내지 일부 귀족층의 개인적 佛事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性理學의 소박한 기질을 숭상했던 사회의 분위기가 불화에도 그대로 나타나 전시대에 비해 좀 덜 화사한 그림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15세기 중엽에서 16세기 중엽에 이르는 시기는 조선시대중에서도 불교가 가장 융성하고 옹호를 받던 시기로서 왕족 귀족들의 후원아래 정교하고 산뜻하며, 독창적인 기법을 지닌 훌륭한 불화들이 많이 제작되었다.

한편,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계속 많은 지장관계불화가 조성되었다는 것은 문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朝鮮王朝實錄』 4卷 世宗 22年 正月條에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지금 승도들이 서울바깥 사찰에서 十王圖라고 칭하고서, 사람형상을 괴상한 형용과 이상한 모양에 이르기까지 그리지 않은 바가 없아옵니다. 그 잔인하고 참혹한 형상을 눈뜨고 차마 볼 수 없아옵니다」[38]

라는 기록이 있어 十王을 중심으로 한 지옥계통의 그림이 많이 그려지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는 지장을 그렸다는 언급은 없으나, 지옥의 무시무시한 광경을 묘사했다는 것으로 보아 지장보살화 역시 성하게 조성되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현재 조선전기의 것으로 알려진 지장보살화는 약 15점에 달하며 그 중 연대가 분명한 작품이 6점이다.[39]

이들 紀年作品은 대부분이 明宗(1545~1567)에서 宣祖(1567~1608)대에 걸쳐 제작된 것으로, 16·17세기에 이르러 年紀를 가진 작품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명종대 文定王后를 중심으로 한 숭불정책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文定王后와 普雨에 의한 불교부흥사업은 명종 20년 문정왕후의 죽음으로 인하여 중도에 꺾이고 말았으나 명종의 왕비인 沈氏도 명종 18년 順懷世子 昞(부)가 병으로 요절함에 더욱 신앙이 깊어져 佛齋供養에 힘쓰게 되어 그후 계속 각종 불사가 성행하고 이에 많은 불화가 조성되게 된 것이다.

지장보살화는 특히 조선조에 이르러 지장보살이 冥府殿의 주존으로서 장례 혹은 사후 명복을 비는 것과 깊은 관련을 갖게 됨에 따라 사원마

다 거의 지장보살화를 봉안하게 된다。 따라서 이같은 지장신앙의 성격상 小幅의 단독상이 많이 조성되던 고려시대와는 달리 대부분 지옥의 十王을 대동한 지장시왕도의 형태를 띤 大作이 많이 제작되었다。

(1) 形 式

전기의 지장보살화는 대략 세가지 형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㊵ 첫째 지장보살의 좌우에 도명、무독귀왕、그리고 六菩薩을 배치한 형식〈예 : 日本 與田寺所藏 지장보살화〉、둘째 지장보살과 도명、무독귀왕 및 권속에 十王을 배치한 형식으로、고려시대 지장시왕도와 비슷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예 : 1546年作 지장보살화(日本 彌谷寺所藏)、1562年作 지장보살화(日本 光明寺所藏) 등〉、그리고 셋째는 위의 형식에 六菩薩을 더 배치한 형식으로 가장 복잡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예 : 1568年作 지장보살화(日本 善導寺所藏)、1587年作 지장보살화(日本 持福寺所藏)등〉。六菩薩은 與田寺所藏 지장보살화에서 처음 나타나는 것인데、지장보살이 六道(天、人、阿修羅、餓鬼、畜生、地獄)能化의 보살이라는데서 나온 발상으로 六道衆生의 고뇌를 구원하는 龍樹菩薩、常悲菩薩、陀羅尼菩薩、金剛藏菩薩、地持菩薩 및 觀音菩薩이 표현되고 있다。㊶ 지장보살의 도상에 六菩薩이 표현되는 것은 조선후기까지 이어지는데 나중에는 그 상징성만이 남아 4~8명까지 다양하게 표현되기도 한다。

(2) 朝鮮前期 地藏菩薩畵의 樣式上 變遷

조선전기의 지장보살화는 고려말의 작품과는 달리 연대가 분명한 작품이 여럿 있다。따라서 이 紀年作品을 중심으로 조선초 지장보살화의 양식변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日本 與田寺所藏 地藏菩薩畵(圖9)는 회화의 양식적인 면에서는 아직 고려의 요소를 지니고 있으면서 조선초기 지장보살화의 새로운 양식을 보여주는 과도기적인 작품이다。즉、지위의 상하에 따라 보존과 권속들이 아래 위로 엄격히 배열되던 2단구도가 깨어져 권속들이 그림의 상단부분으로 올라오게 된 것이다。따라서 여기에서는 권속들이 주존을 둘러싸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끔 여섯보살 및 도명、무독귀왕이 지장보살의 양 옆으로、거의 윗부분까지 꽉 들어차게 된다。더구나 권속들이 아주 작은 크기로 그려지던 것과 달리 이제는 본존과 권속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게 된다。아마 이같이 구도상 변화는 15세기초기 불교가 많은 박해를 받게 됨에 따라 앞시대와 도상상에 격차가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이같은 현상은 다른 불화의 경향과도 상통하는 것으로 1476年作 康津 無爲寺 後佛壁畵(圖10)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이처럼 종래의 엄격한 2단구도에서 본존을 둘러싸는 구도로의 전환은 어쩌면 귀족중심의 문화에서 서민적이고 민중적인 사회로의 변화를 대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㊷

그러나、한편 與田寺지장보살화(圖9)는 아직 고려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즉、지장보살이 쓰고있는 두건이라든지、노승과 같은 도명의 모습、또 이후 조선조에서는 현격히 줄어들게 되는 문양의 과다사용 등이다。반면 고려 불화에서 가슴위에 둥글게 나타나던 衲衣線은 여기서는 추상적인 수평선으로 되고 의습선은 비사실적으로 변하여 전반적으로 배우 도식화되고 추상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한편 15세기 중엽에 들어서면서 지장보살화의 구도는 2단구도가 완전히 깨어지고、지장보살—도명—무독귀왕을 중심으로 한 구도로 정착되게 된다。1546年作 지장보살화(日本 彌谷寺所藏 : 圖11)와 1562年作 지장보살화(日本 光明寺所藏 : 圖12)에서는 본존인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시립하고、좌우 각각 5명씩 十王들이 둘러싸고 있다。여기서 지장보살은 고려시대처럼 눈에 탁 뜨이는게 아니라 그의 영역와 장식성에 의해 그들의 중심인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그림에서는 인물들의 표현이나 의습표현이 매우 추상화되고 형식화되어 비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즉、인물의 개성있는 필

치를 위주로 하던 섬세한 고려불화와는 달리 미곡사소장 지장보살화의 인물은 찌푸린 얼굴과 우스운 표정을 하고 있으며, 광명사소장 지장보살화(圖12)에서의 인물은 둥근 얼굴을 하였으나 짙은 갈색으로 그려져 괴이한 느낌을 준다.

한편 이 15세기중엽의 두 그림은 색채사용에 있어서도 고려조와는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 곧 고려불화의 赤·綠色의 제한된 색상에서 벗어나 주홍, 분홍, 하늘색, 자주, 황갈색 등의 다양한 색조를 사용하는데, 특히 광명사소장 지장보살화(圖12)에서 잘 정제되어 사용되었다. 이것은 문양에 의한 장식성을 주로 하던 고려불화에 비해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색채가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뜻한다.

16세기중엽 지장보살화의 양식적 특징은 16세기후반기에 들어 약간의 변화를 보인다. 즉 1568年作 지장보살화(日本 善導寺所藏)에서는 이전의 도상에서는 보이지 않던 승형인물 및 동녀, 牛頭·馬頭形 등이 나타나고, 1582年作 지장보살화(日本 誕生寺所藏)에는 아래에 명기란이 있어 좌우에 동자입상 및 관인복의 인물이 각 4명씩 묘사되어 있다. 또 1587年作 지장보살화(日本 持福寺所藏)에서는 베를린 동양미술관소장 지장보살화(圖4)에서 보이던 金毛獅子도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당시 아미타불화의 형식에도 나타나 아미타7존도 및 아미타군도의 형식이 생기게 되고, 권속의 표현에 있어서도 外護衆 및 聖聞衆 등을 화면가득 거의 여백을 남기지 않고 그리고 있다.(43)

한편, 인물표현에 있어서는 어색함과 도식화되고 형식적인 면이 두드러진다. 善導寺소장 지장보살화는 얼굴모습이 매우 가늘고 곧은 철선으로 그려져 있어 별 볼륨을 주지않으며, 誕生寺소장 지장보살화와 觀音寺소장 지장보살화에서는 인물표현이 비논리적으로 어색하게 되어 있다. 또 이 시기가 되면 지장보살의 법의는 화려한 문양이 사라지고 持福寺소장 지장보살화에서처럼 단지 條線으로만 장식이 되고 그외는 아무런 장식이 없게 된다.

색채면에서는 主調色인 綠·赤色이외에 검은 색조의 사용과 불투명한 청색, 자주색, 황토색 등의 사용이 늘어나는 것을 알수 있다. 특히 선도사소장 지장보살화에서는 검은색의 사용이 두드러지며, 고려시대 풍부히 사용되던 金泥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사용되게 된다. 또한 문양형태 역시 크게 줄거나 거의 사라져 색채와 선이 주요한 장식요소가 된다.

이상 간단히 조선전기에 제작된 지장보상화의 양식적 변천을 살펴보았다. 고려시대의 지장보살화와 비교해볼 때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엄격한 2단구도가 사라지고 본존을 중심으로 둘러싸는 듯한 구도로 변한 점이다. 이것은 앞에서도 밝혔듯이 신앙자의 성격이 변화하는 데서 오는 현상이 아닌가 한다. 또 하나 이러한 추측을 가능케 하는 것은 지장보살화의 크기가 현격히 커졌다는 점이다. 즉, 고려시대 지장보살화는 대개가 가로, 세로 모두가 1m 내외에 불과한 소폭으로서 큰 법당에 모셔졌던 것이 아니라 작은 願堂이나 法堂에 봉안되어졌던 것이라 추측되는 반면(44) 조선전기 지장보살화는 크기도 늘어난 한편 가로, 세로의 비율도 줄어들고 있어 종래 조그마한 원찰에 봉안되던 것에서 이제는 점점 후불탱화로의 성격이 커져가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맺 음 말

지금까지 고려말기와 조선전기에 제작된 지장보살화를 중심으로 지장보살신앙의 기원 및 역사를 비롯하여 양식변천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지장신앙은 삼국시대에 발아하여 8세기 진표율사에 의해 실천, 전파된 후 고려,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신앙대상이었다. 따라서 일찍부터 회화 또는 조상으로 다수 조성되어 주요한 예배대상이 되어왔다. 더구나 지장신앙은 사후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을 면하고자 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願望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일반서민 뿐 아니라 귀족에 이르기까지 널리 신앙되었던 것이다.

圖 1. 지장보살화. 고려
日本 根津美術館所藏.
45.3 × 107.6 cm

圖 2. 지장보살화. 고려.
日本 善導寺 所藏
43.6 × 111 cm

圖 3. 지장보살화. 고려.
日本 德川黎明會 所藏.
43.9 × 10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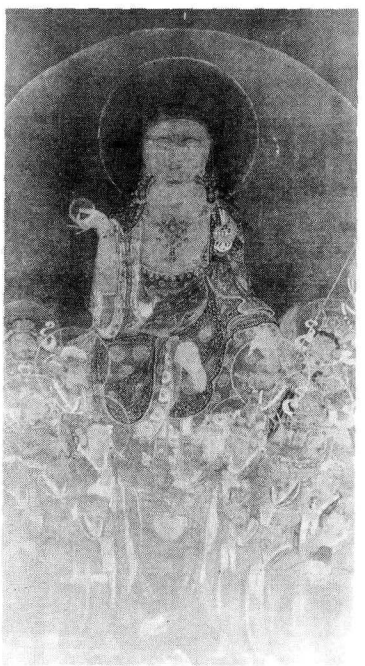

圖 4. 지장보살화. 고려.
서독 Berlin동양미술관 所藏.
56.5 × 109 cm

圖 5. 지장보살화. 고려
日本 靜嘉堂 所藏.
55.9 × 143.5 cm

圖 6. 지장보살화. 고려
日本 日光寺 所藏.
59.2 × 117.1 cm

圖 7. 지장보살화. 고려. 湖巖美術館所藏.
55.6×1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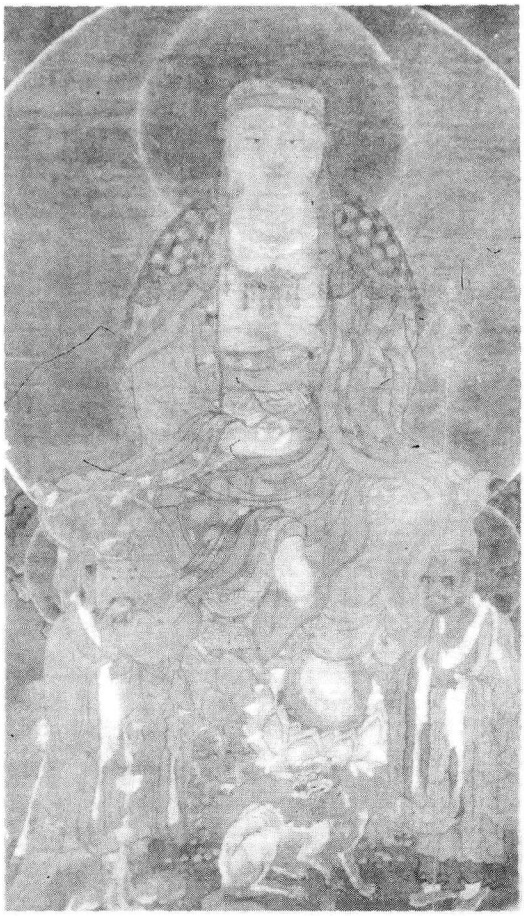

圖 8. 지장보살화. 고려. 日本圓覺寺所藏.
130×2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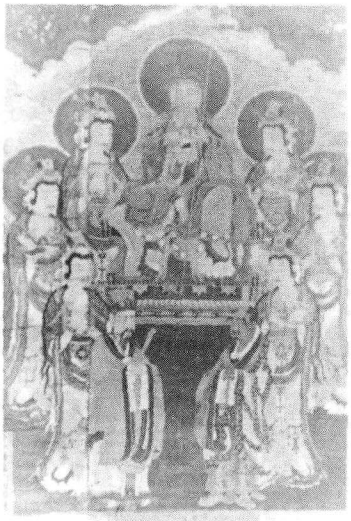

圖 9. 지장보살화. 조선전기.
日本與田寺所藏.
76.6×128㎝

圖 10. 아미타삼존도. 1476년. 全南 康津 無爲寺

圖 11. 지장보살화. 1546년. 日本弥谷寺所藏. 128.5× 138.5㎝

圖 12. 지장보살화. 1462년. 日本光明寺所藏. 94.5× 85.7㎝

고려시대에는 귀족적인 불교문화를 대변해주듯 화려한 귀족풍의 지장보살화가 많이 제작되었던 반면, 조선전기에는 보다 민중적이고 서민적인 취향에 맞는 지장보살화가 조성된 것을 볼 수 있다。즉, 구도면에서 상하구분의 2단구도에서 본존 중심의 꽉 들어찬 구도로 변하게 되는 것이나 화려한 문양이 줄어들고 金泥를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시기에 조성된 지장보살화가 단 1점 밖에는 없지만 고려말기와 조선전기의 지장보살화는 당시의 융성했던 지장신앙을 대변해 주는 한편, 국내에 남아있는 다수의 조선후기 지장보살화의 양식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註〉

① 『三國史記』 卷第26 百濟本紀 聖王條
「…19年(541年) 王遣使入梁朝貢 兼表請毛詩博士 涅槃等經義 并工匠畵師 等梁從之…」。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梁을 비롯한 六朝의 불화가 삼국시대에 수용되었다고 믿어진다。

② Barry Gazzard, "Korean Buddhist Painting", *Oriental Art*, Vol.XV, No.4 (Winter, 1969), p. 263.

③ 眞鍋廣齊 『地藏尊の研究』 (東京 : 磯部甲陽堂, 1941), p. 14.

④ 不空譯 『八大菩薩曼荼羅經』에는 乞灑詞羅惹 Kṣaharaṇa 라는 梵名을 들고 있는데 乞灑 kṣa 는 地, 詞羅惹 hāraṇa 는 含攝의 뜻으로 역시 地藏의 의미인 것이다。眞鍋廣齊, 앞책, p. 16.

⑤ 佐和隆研, 「地藏菩薩の 展開」, 『佛教藝術』97호 (東京 : 佛教藝術學會, 1974), p. 8.

⑥ 중국의 경우는 늦어도 5, 6세기에는 이미 지장신앙이 들어왔던것 같다。즉, 唐代에 편찬된 道世의 『法苑珠林』(683년)에 「…自晋宋梁陳秦趙國 國分十六 時經四百 觀音地·藏彌勒彌陀 稱名念誦 獲得救者 不可勝紀 具諸傳錄」이라고 기록된 것이나 梁武帝(502~549)때 활약한 장 승요가 善寂寺 벽위에 지장보살의 존상을 그렸다는 기록, 또 地藏三部經중의 하나인 『佛說大乘大集地藏十輪經』의 한역시기가 北涼代(397~439)로 추측되는 일

등으로 미루어 볼때 중국의 지장신앙은 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道世『法苑珠林』第17(大正新修大藏經、卷53、p.411) 및 河原由雄、「燉煌書地藏圖資料」、『佛教藝術』97號、p.106 참고。

⑦ 진표의 지장보살신앙은 주로『占察經』에 의한 신앙인데 지장보살을 說主로 한 점찰경신앙은 진표이전에도 상당히 유행하고 있었다。즉、眞平王(579~632)때 원광은 歸戒滅懺의 법으로서 우매한 중생을 깨우치고자하여 그가 머물던 嘉瑟岬에 占察寶를 설치하고 常規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고(『三國遺事』卷4 圓光西學條) 또 마찬가지로 眞平王때의 智慧라는 비구니는 매년 봄·가을 安興寺에 선남선녀를 모아 10일동안 점찰법회를 시행했다고 한다(『三國遺事』卷5 仙桃聖母隨喜佛事條)。이외에도 죽은 她(蛇)福과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세워졌던 道場寺에서는 매년 3月 14日 항례적으로 점찰법회가 실시되었다고 하며(『三國遺事』卷4 她福不言條) 興輪寺에서는 大輪會를 열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三國遺事』卷5 大聖孝二世父母條)。金煐泰、「新羅占察法會와 眞表의 教法研究」、『佛教學報』9집(東大佛教文化研究所、1972) 및 金文經、「三國·新羅時代의 佛教信仰結社」、『史學志』10(檀大史學會、1976)참고。

이외에도 신라시대 이미 冥府에 대한 사상이 널리 퍼져있었다는 것으로「善律還生」설화를 들 수 있는데(『三國遺事』卷5 善律還生條) 이것은 신라시대 望德寺의 중 善律이 반야경을 필사하는 도중 염라대왕에게 잡혀갔다가 10일만에 다시 환생했다고 하는 설화로서 十王사상(명부사상)의 유행을 시사해 준다。

또『三國遺事』卷3 臺山五萬眞身條에는 淨神大王의 태자 寶川(혹은 寶叱徒)과 孝明형제가 오대산에서 지장을 비롯하여 王萬眞身을 낱낱이 참배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一然의 말대로 淨神大王을 神文王으로 보고 孝明太子를 聖德王으로 본다면 적어도 8세기 초에는 지장신앙이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일본측 기록인『南都七大寺順禮記』에 의하면 法隆寺 金堂의 지장보살상이 백제에서 헌납된 것이라는 기록이 보이고 있어 삼국시대 이미 백제에서 일본으로 지장신앙이 전래되지 않았나 한다。

「…本尊 彌勒·地藏·十一面 或上宮御作 或百濟所獻之像…」、眞鍋廣齊、앞책、p.146 再引。

⑧ 一然『三國遺事』卷4 眞表傳簡條、權相老譯(東西文化社、1978)、p.351.

⑨『三國遺事』卷4 關東楓岳鉢淵藪石記

이 글은 鉢淵寺의 주지 瑩岑이 고려 神宗 2年(1198)에 지은〈鉢淵藪眞表律師骨藏立石碑銘〉을 一然의 제자 無極이 抄하여 기록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진표율사가 27세 되던 해인 上元 元年(760년)에 不思議庵으로 들어가 3년만에 지장보살에게 계법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⑩『三國遺事』卷4 心地繼祖條

⑪ 神昉은 650년 玄奘이 大慈恩寺에서 本事經7卷을 번역할 때 筆受하였으며 그 다음해『十輪經』10卷이 譯出되였을때 그 經序를 지었다。그는 이외에도『十輪經抄』3卷、『十輪經疏』8卷、『十輪經音義』1卷등을 찬술했다고 전해지나 현재는『大乘大集地藏十輪經序』(大藏經 13卷、p.777에 수록) 하나만이 전하고 있다。

『韓國佛教撰述文獻總錄』(東國大學校 佛教文化研究所、1976) pp.14—15.

⑫ 金煐泰·禹貞相『韓國佛教史』(進修堂、1969)、p.60 및 金煐泰、「高麗歷代王의 信佛과 國難打開의 佛事」、『佛教學報』14、徐閏吉、「高麗의 護國法會와 道場」、『佛教學報』14(1977)참고。

⑬ 徐兢『宣和奉使 高麗圖經』卷17 靖國安和寺條

⑭ 李東洲、「고려불화—幀畵를 중심으로」、『高麗佛畵』韓國의 美7(중앙일보사、1981)、p.196.

⑮『高麗史』世家 卷38 恭愍王元年條

⑯『高麗史』卷35 忠肅王11年條

⑰ 李能和『朝鮮佛教通史』上篇 世祖王條

「…丁丑 3年(明 天順元年：1457年) 秋九月王世子薨 王爲追冥福 手書金剛般若經正文 以篇字本…(中略)、且模木板大藏一部 註華嚴一件 地藏經·懺法各十四件…(中略)、金書法華經一件 墨書法華經 地藏經·梵網經 起信論行願品各一件…」

⑱『韓國佛教撰述文獻總錄』p.252.

⑲ 조선후기 지장보살본원경의 언해본 간행은 다음과 같다。

① 隆慶3年(1762) 文川 頭流山 貝性寺開刊(전편이 순 한글)。

② 乾隆30年(1765) 京城外 後南山 藥師殿開刊。
③ 乾隆56年(1791) 順天 松廣寺開刊。
④ 光緒5年(1879) 地藏經 해석 서문。

⑳ 이러한 일들은 일반서민뿐 아니라 왕실에서도 행해져 문종이 선왕인 세종대왕의 명복을 빌기위하여 지장경등 불경을 사경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文宗實錄 卷1 즉위년(庚午) 4月10日條
(朝鮮王朝實錄 6卷 p. 230)

㉑『三國遺事』卷4 臺山五萬眞身條
「…赤任(在)南臺南面 置地藏房 安圓像地藏 及赤地畵八大菩薩爲首一萬地藏像 福田五員 晝讀地藏經 金剛般若夜占察禮懺稱金剛社…」
그런데 金文經씨는 金剛社라는 것은 일종의 지장신앙과 연결된 신앙결사로서 사찰에서 거행하는 많은 法事의 지원단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며 초기 불교도의 신앙결사는 불교를 대중화하는 방편가운데 하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이 목적하는 바는 주로 왕생정토와 현세구복에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볼때 정토신앙과 연결된 지장신앙이 꽤 유행하지 않았나 한다。
金文經、「三國·新羅時代의 佛敎信仰結社」、『史學志』10집(檀國史學會、1976 11) 및「儀式을 통한 佛敎의 大衆化運動」、『史學志』4집(1970) 참고。

㉒ 高裕燮、「高麗의 佛寺建築」、『韓國美術文化史論叢』(通文館、1974)、p. 201 再引。

㉓「…西門曰孝思院 後有殿曰 彌陀堂 殿之間 有兩廈 其一以奉觀音 又其一以奉藥師 東廡繪祖師像 西廡繪地藏…」

㉔『高麗史』에는 文宗27年에 42인、28年에 39인、29年·33年·34年·36年에 각각 사신을 파견했으며 宣宗元年、2年·3年·4年·6年에 상인이 고려에 왔다는 기록이 보인다。
또 10세기경부터 확대되기 시작한 莊園이 宋과 밀무역을 행하게 되고 11세기 경에는 장원의 영주가 직접 배를 만들어 莊官들을 해외에 파견하는데 초기에는 가까운 고려로 와서 고려대장경 및 책등을 수입했다고 한다。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때 고려의 불화도 수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森克己、「九州と大陸との文化交流」、『佛敎藝術』76號、p.4 및 菊竹淳一、「高麗佛畵にみる中國と日本」、『高麗佛畵』(朝日新聞社、1981)참고。

㉕『吾妻鏡』貞永元年(1232)條에 鏡社住人이 고려에 건너가 다수의 珍寶를 훔쳐 귀국했다는 기사를 비롯하여 佐賀 鏡神社소장의 양유관음상화기에 그것이 明德2年(1391)良賢에 의해 그곳에 기진되었다는 기록、또『立政寺文書』에 文明16年 11面觀音像이 기진되었다는 기록등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菊竹淳一、앞글、p. 15.

㉖ 이런 형상의 지장보살을 松本榮一은「被帽地藏」이라 부르고 있으나 지장이 쓰고 있는 것은 모자라기 보다는 두건에 더 가깝다고 생각되므로「被巾地藏」또는「頭巾地藏」이라 함이 더 옳다고 생각된다。그런데 돈황의 작품은 幡畵는 모두 민머리이나 지장시왕도는 두건지장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松本榮一、「被帽地藏圖」、『燉煌畵の硏究』圖像篇 (東京：東方文化學院東京硏究所、1937)、p. 369.

㉗ 佐和隆硏、「地藏菩薩の展開」、pp. 10-11.

㉘ 朴英淑、"Kṣitigarbha as Supreme Lord of the Underworld" *Oriental Art*, Vol. XXIII, No.1 (1977), p. 99.
또 河原由雄은 Chotcho(高昌)의 訶梨帝母도 두건을 쓰고 있어 Chotcho에 이주해온 위구르인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다。河原由雄、「燉煌畵地藏圖資料」、p. 12-13.

㉙ 菊竹淳一、앞글、pp. 12-13.
㉚ 松本榮一、앞책、pp. 377-379.
㉛ 朴英淑、앞글、p. 102.
㉜ 河原由雄、앞글、p. 100.
㉝ 上野アキ는 오른쪽으로 몸을 틀어 서방정토가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한 고려시대의 정토관은 북방계의 영향이 강하다고 말하고 있다。上野アキ、「高麗佛畵の種々相」、『高麗佛畵』(朝日新聞社、1981)、p. 22.
㉞ 文明大교수는 고려시대 이같이 엄격한 2단구도가 등장하는 것은 고려말과 대하게 팽창한 귀족과 형편없이 위축된 서민과의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文明大、「魯英의 阿彌陀·地藏佛畵에 대한 考察」、『美術資料』25(1979)、

p. 56.

㉟ 이러한 필선과 함께 고려불화에서 더욱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필선은 곧고 단단한 필선이다。이것은 대부분의 지장보살화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힘있는 필치를 보여준다。따라서 이런 필선은 마치 조각한 듯한 날카로운 의습선을 형성하여 조각과 같은 느낌이 들게하고 있다。

㊱ 실제로는 위지을승풍이라는 말도 있으나 이것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는 확실치 않다。

「…尉遲乙僧 外國人 作佛像甚佳 用色沉着 堆起絹素 而不隱指平生凡四見眞跡要不在盧稜伽之下…」。湯垕,『畵鑑』(世界書局印行, 1974), p. 181.

한편, 吳道子風은 吳帶當風, 소위 飄擧體라 하여 옷깃이 바람에 날리는듯이 그리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구불구불한 선도 오도자풍으로 보는 것이 옳을듯하다。그런데 文明大교수는 이러한 구불구불한 선의 혼란성은 元의 지배하에 들어간 암담하고 애매하며 혼란된 사회의 분위기를 필연적으로 반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文明大, 앞글, p. 55.

㊲ 菊竹淳一은 고려불화에 과대할 정도로 많은 문양을 사용하는 것은 13세기~14세기에 걸쳐 고려불화가 중국불화의 영향 내지 속박에서 벗어남에 따라, 과거 중국불화에서 풍부한 도상과 탁월한 기법의 공급원을 소유하던 것에서 공급원이 고갈되어 동일 도상을 반복하는 경향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근거가 약한 것이며, 문양의 과대사용은 색채가 아닌 문양으로서 불화의 장식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菊竹淳一, 앞글, p. 13.

㊳『朝鮮王朝實錄』4卷 世宗實錄 卷88, 22年正月條。

「…司練院啓令僧徒 乃於京外寺社 稱爲十王圖 圖畵人形至於殊形異狀無不畵作其殘忍慘酷之狀 目不忍見…」

㊴ 紀年作品은 다음과 같다。

1, 嘉靖 25年(1546)銘 地藏菩薩畵(日本 弥谷寺所藏)
2, 嘉靖 41年(1562)銘 〃 (〃 光明寺所藏)
3, 嘉靖 43年(1564)銘 〃 (〃 石手寺所藏)
4, 隆慶 2年(1568)銘 〃 (〃 善導寺所藏)
5, 萬曆 10年(1582)銘 〃 (〃 誕生寺所藏)
6, 萬曆 15年(1587)銘 地藏菩薩畵(日本 持福寺所藏)

㊵ 中野照男은 한국의 지장시왕도 형식을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나누고 있다。

(A) 지장보살의 좌우에 도명, 무독귀왕 및 시왕을 배치한 것: 일본 미곡사 소장, 광명사 소장, 탄생사 소장, 서방사 소장, 연광사 소장 지장보살화。

(B) (A)에 6보살을 더한것: 일본 석수사 소장, 선도사 소장, 지복사 소장, 광수산복취사 소장, 관음사 소장, 고야산영생관 소장 지장보살화。

(C) (A)에 협시인 2보살, 사천왕 등을 더한것: 일본 정가당 소장, 일광사 소장, 吉田秀英氏 소장 지장보살화。

(D) 지장만다라: 일본 연명사 소장 지장보살화。

이중 조선전기의 도상에 해당하는 것은 (A)와 (B)이며 (D)는 지장시왕도가 아니라 三藏幀畵이다。

中野照男,「朝鮮の 地藏十王圖について」,『佛敎藝術』97號, p. 132.

㊶ 본래 十王經에서는 六菩薩의 하나로 地藏보살을 들고 있으나 여기서는 지장보살이 주존이 되어 있으므로 그의 동류보살이며 三藏보살의 하나로 지장보살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地持菩薩이 대신 들어간다。

崔淳雨·鄭良謀,『韓國의 佛敎繪畵—松廣寺』(서울, 國立中央博物館, 1970), p. 83.

㊷ 文明大,「朝鮮時代의 佛畵樣式」,『韓國의 佛畵』(서울, 悅話堂, 1979), p. 163.

㊸ 柳馬理,「韓國阿彌陀佛畵의 硏究」, 弘大大學院碩士學位請求論文(1980·6), pp. 11-13.

㊹ 李東洲교수는 귀족내지 왕족들의 원당에 걸었다고 하며 文明大교수는 작은 法堂에 봉안했던 것이라 말하고 있다。

李東洲,「高麗의 佛畵—幀畵를 중심으로」,『高麗佛畵』, p. 196 및 文明大,「高麗佛畵의 造成—背景과 內容」,『高麗佛畵』, p. 216.